

제/개정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요약

이필순 · TTA 표준본부 전기통신표준부
이문철 · TTA 표준본부 정보기술표준부

정보통신표준화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의결방법), 제29조(표준화 과제의 채택 등)에 의거한 제 18차 정보통신표준총회(서면의결/2000. 3. 15~25)가 개최되어 총 143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TTAS)이 제정되고 총 237건의 표준화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제정된 143건의 단체표준은 IMT-2000분야 130건, 서비스 및 단말분야 2건, 데이터분야 8건, 정보보호분야 3건으로 새로이 제정된 단체표준 중 일부표준을 선정하여 표준내용을 요약·소개한다.

표준번호 : TTAS.KO-10.0108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정보 교환용 형식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Format for
information exchange

표준내용

이 표준은 ISO 2709:1996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 표준은 서지 기술이 가능한 자료 등을 컴퓨터에 축적하고 검색하는데 필요한 레코드의 구조와 데이터의 내용 식별, 표현, 배열법 등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명시한다.

그러나 이 표준은 개별적인 레코드의 길이나 내용을 정의하지 않으며, 표시 기호(tag)나, 지시 기호(indicator) 또는 식별 기호(identifier)의 의미나 실행 포맷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설명

하지 않는다.

또한, 이 표준은 특별히 데이터 처리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레코드 형식의 일반적 구조에 대해 기술하지만, 시스템 내에서의 정보 처리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보와 도큐멘테이션 - 정보 교환 형식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레코드 레이블 : 레코드의 길이, 상태, 코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 디렉토리 : 각각의 필드(레코드 식별 기호, 참고 및 데이터 필드) 수에 상응하는 가변의 항목들 수로 구성된다. 디렉토리는 필드 분리 기호로 종료된다.
- 필드 : 레코드 식별 기호 필드, 참고 필드, 데이터 필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표준번호 : TTAS.IT-T37

인터넷에서 축적 전달 방식을 통한 팩시밀리 데이터 전송 절차

Procedures for the transfer of facsimile data via store-and-forward on the internet

표준내용

본 인터넷 상에서 축적전달 방식을 이용한 팩시밀리 데이터 전송 절차 표준은 ITU-T 권고 T.37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인터넷 축적 전달 팩시밀리는 문서의 포스팅, 중계, 그리고 배달을 위해 IETF가 승인한 프로토콜 표준을 준용하고 있다.

본 표준은 :

- 축적 전달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팩시밀리 데이터 전송 절차를 정의한다;
- 권고안 F.185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
- 수신 장치의 능력을 결정하는 방법을 인지한다 ;
- 배달(결과) 통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인지한다 ;
- 현재 ITU 팩시밀리 권고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

- 팩시밀리와 인터넷 메일 사용자와 기반 장치들 사이에 가능한 한 공통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폭 넓은 상호작용을 허용한다.


축적 전달 팩시밀리는 둘 중 하나의 모드로 작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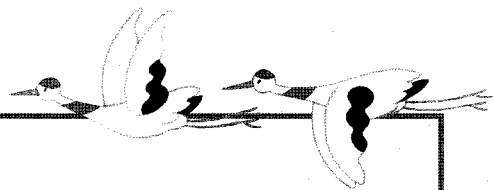
상호 동작을 위해 아래 정의한 대로 심플 모드에서 통신한다. 본 표준을 따르고 수신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들은 반드시 심플 모드에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본 표준을 따르고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들은 최소 사양으로 심플 모드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심플 모드

이것은 이미지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능력에 대한 정보는 상호 교환되고, 수신 확인은 심플 모드에서 요구되지 않지만, 본 표준 범위 밖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전자메일 기능으로 제공될 수 있다.

완전(full) 모드

이것은 이미지 데이터 전송을 지원한다. 능력 정도에 대한 정보는 상호 교환되고 수신 확인도 완전(full) 모드에서는 요구된다. 



스웨덴, 전국민 네티즌화 추진

스웨덴 정부는 최근 세계 최초로 전국민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정보기술(IT)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외른 로센그렌 상무장관은 「173억크로나(20억달러)가 투입되는 전국 네트워크의 구축이 「IT계획의 핵심」이라면서 「투입 비용 중 83억크로나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90억 크로나는 지방 자치정부가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센그렌 장관은 「네트워크 구축이 2년 내에 완료돼 전 국민이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